

◆ ‘자비의 발’ 일구는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

“모았으면 나누어 도와야지요”

“모으기만 하면 뭐해요. 조금 모이면 조금 모이는데로 열심히 나누어 도와줘야지요.”

세상에는 40억 명이 넘는 부처님이 있다. 이 중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전(福田)을 일구는 스님이 있다. 광주 비전사(悲田寺) 주지 보혜 스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보혜 스님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적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부프로그램 ‘자비의 발’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비의 발’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0원부터 보시를 하도록 한다. 10원은 복을 담고 있는 씨앗 ‘복 종자(福種子)’다. 과거 1000불, 현재 1000불, 미래 1000불에게 10원씩 보시해서 1년에 1~3만원 부터 보시할 수 있도록 한다. 1년에 1000 불에게 올릴 것인지, 2000원들에게 올릴 지는 개인 선택이다. 자비의 발 기부프로그램은 작은 정성과 관심만으로 쉽게 보시금을 모으기 때문에 신도들의 호응도가 높다. 비전사에는 이렇게 1000불, 2000불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신도들이 많다.

신도들은 후원에 동참하면서 더 행복해졌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후원금을 만들어,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을 직접보기 때 문이다.

‘자비의 발’으로 마련된 기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마련, 군법당, 노인복지센터, 아시아인권 문화연대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장학사업, 광주생명나눔을 통해 소아 암백혈병의 환우지원, 노숙자지원 센터, 장학금, 급식비 등에 후원한다.

보혜 스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자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은 2000

년 광주 공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작은 사찰 비전사를 마련하면서부터다. 비전사의 비전(悲田)은 복을 받기 위하여 공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세 대상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스님은 비전의 뜻과 전문가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다. 비록 작은 출발이었지만 복전에 씨를 뿌리는 이들은 더욱 늘어갔다.

“처음에는 신도분들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장학금으로 출발했어요. 대부분 절에는 시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신도들은 장학금을 생소해 했었죠.”

신도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받은 장학금을 부처님이 주신 장학금이라고 생각했다. 신도들은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우려났고 스님과 이웃에게 감사했다. 10여 년 동안 80여 입학생에게 장학금 10만 원씩이 전달됐다. 수백, 수천 만원하는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던 신도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밖에 입춘 공양미를 쌓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10년째 진행중인 쌀 전달은 올해 쌀 3000kg나 돼 곳곳의 이웃에게 전달

했다. 또 네팔 노동자 24가족 40명에게 생계비, 교육비,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보혜 스님은 해외 기금 마련도 진행 중이다. 네팔인근의 불교국가인 무스탕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다. 장남과 차남 중 한명은 출가를 해야하는 불교국가에 출가자들을 위한 후원과 학교시설을 지어주기를 발원했다.

보혜 스님은 작은 사찰들에 다양한 후원은 물론 수행활동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큰 목돈을 쥐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은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되듯 복의 씨앗을 복전에 뿌리고 있었다.

보혜 스님은 “받는 것에만 익숙한 한국불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누고 공유해야한다. 모든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 작은 사찰의 작은 실천은 지역사회와의 공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천개의 작은 사찰이 천개의 복전을 만든다면 ‘개울물이 큰 바다’를 만드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게 스님이 천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당에서 템플스테이를 가다

익산 승림사, 이웃종교 청소년들과 이색 템플스테이

이웃종교 청소년들이 한국전통 불교문화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7월 24~25일 불교 가톨릭 무종교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20여 청소년들은 입제식에 이어 자기소개와 발우공양, 저녁예불, 참선, 다도, 주지스님 특별법문, 108배 참회정진, 운력, 자기소개, 소감발표 및 소감문 작성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템플스테이에 처음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반응이었다.

지광 스님은 행사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바쁜 학업을 뒤로 하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을 환영한다”며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승림사 인근의 함평성당에 다닌다는 하수민(여, 19)양은 “비록



가톨릭·무교 등 이웃종교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참선 체험을 하고 있다.

종교가 불교는 아니더라도 절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참선은 나를 리셋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신재용(남, 17)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참된 나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남, 17) 학생은 “성당에서 절을 간다니 이상한 생각과 평소에도 템플스테이는 관심이 있어서 기대만 두려움 반으로 왔다”며 “익숙하지 않은 식사방법에 놀라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저녁을 먹

은 것 같았지만 스님들의 대단한 절약정신과 실용성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도훈(남, 17) 군은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동체의식도 배웠다”며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공동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계기가 되었다. 수능전에 다시 한 번 보고 싶다”고 소감했다.

김영경(여, 16)양은 “끈기가 없던 내가 참선도 해보고 마음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고3이 된다면 같이 수련했던 언니처럼 이곳에 혼자 와서 1박 2일동안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소자 독경대회 순천 흥선사

흥선사(주지 정안)는 7월 27일 순천교도소에서 350여 재소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 맞는 이번 행사에는 선암사 전각 스님, 용화사 주지 선안 스님, 선암사 지법·동선 스님 등이 참석했다.

경연대회에는 순천교도소 불자 재소자 10여개 팀은 열띤 경연을 펼쳤다. <금강경> <천수경> <신묘장구대라라니> 독경 소리가 교도소에 울려 퍼졌다.

전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평상시에도 꾸준히 계속하면 몸과 마음의 평화가 어느덧 자신에게 깃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말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원심회 의료봉사 마하의료회

“할머니,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세요. 약 드릴 테니 꼭 챙겨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연수(73) 어르신 손에 약봉투를 챙겨드리며 이야기 한다. 최연수 어르신은 고통에 언어 장애까지 있어 의사소통이 힘들다. 그러나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 회원들은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하고 또 하며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에 적극 나섰다.

마하의료회는 7월 25일 오후 조계사 청각 장애인단체 포교원심회와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활동에 김태환 한의사, 차과 양동선 의사(부회장)등 15명 이 참여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의료봉사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끝났을 정도로 복재들이었다. 원심회 회원들은 의료봉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찾아왔던 아픔과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봉사가 진행된 원심회 법당은 시끄럽지 않았다. 원심회 회원과 마하의료회 봉사자 사이의 수화통역은 원심회 임재민 회장이 맡았다. 임 회장님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불편함을 전했고, 의사선생님의 대답



마하의료회 봉사자들이 7월 25일 원심회 법당에서 정기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을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아픈 이유와 치료방법을 전달했다.

마하의료회 하상현 팀장은 “가끔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연2회 정기진료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할머니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금선사, 따뜻한 밥상 1주년 회향법회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은 7월 16일 광주 포에버리더스에서 무료급식 ‘따뜻한 밥상’ 1주년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무료급식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와 신도, 후원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활동보고, 사찰살림경영연구소 김관태 주사 초청 대안 자제공덕회의 활동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정영임, 박은자 회원에게 개근상도 전해졌다.

일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행의 첫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가한 정영희 보살은 “노점상 할머니들이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 같다. ‘밥맛이 없었는데 맛있는 죽을 먹게 돼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선사 심시일부 무료급식 봉사단과 자비신행회는 송정시장 노점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달 5일 진행한 무료 점심급식을 제공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송정시장 행사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해진 점심은 약 4000 그릇, 동참 봉사자 약 200여 명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실내악단 여연화 창단 법회

퓨전 실내악단 여연화 앙상블 창단법회가 7월 26일 부산불교회관 1층 갤러리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여연원 서정희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 음악을 통해서 때 묻은 마음을 치료하고, 수행하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불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부처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환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보충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호 남 교 육 원 063-254-5529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충 청 북 부 교 육 원 043-263-9966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두려움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